

천년 지혜 대장경에서 미래를 2011 축전보고대회... 대구시 별도 행사



대장경축전 조직위가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최를 1년여 앞둔 3월 25일 합천 해인사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고려대장경 간행 '1000년'을 기념하는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최를 1년여 앞두고 해인사와 경성남도, 합천군으로 구성된 대장경축전 조직위원회는 3월 25일 저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보고대회에는 김태호 경남도지사, 해인사 선각 스님, 심의조 합천군수 등 주최 대표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최병국 국회정각회장, 주호영 특임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총회위원장 보선 스님, 교육위원장 현승 스님, 포교위원장 혜종 스님, BBS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회에 앞서 박재완 청와대 국정수석의 대독한 축전에서 "대장경은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 한 마음으로 모으는 평화와 화합의 원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온 세계에 알릴 국격을 높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직위원장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대장경 천년을 맞아 이제는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보다 국민 속에 널리 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대회를 통해 "천년의 운명, 미래의 지혜"라는 대회 캐치프라이즈

이처럼 한국불교의 정신과 고려의 기술, 끈기의 한국인의 민족성이 잘 드러난 대장경을 알리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신과 선조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갈등을 해결하자"고 말했다.

대장경 축전은 2011년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45일간 합천 해인사와 합천군 가야면 행사장, 창원 컨벤션센터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남도와 함께 대구시도 부인사 대장경(조조대장경) 조성 1천년을 맞아 대구육상대회 기간인 2011년 7월 1일~9월 4일까지 조조대장경 축전을 연다. 부인사 대장경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앞선 최초의 대장경으로, 1011년에 제작돼 2011년이면 정확히 조성 1천년이 된다.

대구시는 축전기간 중 △2011명의 스님이 3일간 대장경을 운송하는 '조조대장경 전장(轉藏)대회' △실�크로드를 통한 천년 대장경의 재연 △국가 축제인 팔관회를 새롭게 해석한 '밀레니엄 팔관회' △1000명의 대구시민이 참가하는 '조조대장경 이운'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나눔으로 희망 만들어요”

국제구호 '나누우리' 창립... 사진법인 추진

국제구호활동을 통한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가 3월 24일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행사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해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사장 월운 스님은 개회사에서 "세계의 원조를 받던 한국이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났다"며 "나누우리가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나누우리 고문으로 추대된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나누우리가 인류의 공동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약속했다.

나누우리 봉사단장 송진여심 보살은 발원문 봉독을 통해 "우리가 이웃 이쁨을 물랐음을 부처님 전에 참회한다"며 "이제 세상의 빛과 행복을 위해 내 것을 나누어 희망을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가 3월 24일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창립법회를 열었다.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법회에서는 '나누우리' 봉사단장 진여심 보살, 부단장 무량성, 성심월 보살, 총남부부장 지엄스님, 전북부부장 진성 스님, 경북부부장 법도 스님, 경남남부부장 진화전 법사, 제주부부장 탄해 스님, 경기북부부장 보원 스님, 대전지부장 월초 스님, 경남동부부장 만우 스님, 전남지부장 일진 스

남 등 나누우리 봉사단장과 부단장, 각 지부장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나누우리는 2010년 △국내외의 절대빈곤층 및 소외계층 구호 △낙후 지역 개발지원 △재난지역 긴급구호 및 지원 △나누우리 봉사단 결성 △자료집 발간 등 사업을 전개하고, 연말까지 사단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원효·일연·설총을 기리며...

경산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경북 경산에 원효 스님(617~686)과 일연 스님(1206~1289), 설총(660~?) 등 삼성현을 기리는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된다.

경산시(시장 최병국)는 3월 19일 경산시 남산면 공원부지에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지역 정관계 인사, 주민 등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은 경산시 남산면 인흥리 26만2774㎡(8만여 평) 부지에 예산 463억원을 투입해 2012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원효·일연·설총 등 삼성현 관련 자료를 모은 역사문화관을 비롯해 원효각, 일연각, 설총사, 삼성현 기념탑, 성현의 길, 삼성현 단소 등 관련 시설물이 들어선다. 또 다목적운동시설을 갖춰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격려사에서 "원효 스님과 설총, 일연 선사는 경산에서 출생한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라며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삼성현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병국 경산시장은 인사말에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 속에 국가적 사업으로 승화돼야 한다"며 "정신문화 교육의 장이 될 삼성현 공원이 경산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을 경주의 불교문화권, 안동의 유교문화권, 고령의 가야문화권과 대동한 정신문화 유역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금강대 교육역량강화

사업 3회 연속 선정

동국대는 탈락

금강대(총장 성낙승)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2008~2010년 3회 연속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금강대가 이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는 지원금은 7억2300만원으로, 2008년 1억4700만원, 2009년 6억5500만원에 이어 증가된 금액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200여 대학 중 85개 대학이 선정됐고, 충남 대전권 대학 중에서는 금강대 등 10개 대학만이 선정됐다.

한편, 동국대는 이번 사업에 탈락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서울·경주캠퍼스와 합쳐서 평가를 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100자 뉴스

한국종교지도자협 '자살예방 선도' 성명발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살없는 건강사회 구현! 종교지도자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자살예방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 등이 동참했다.

마주협 이주민 쉼터 지원사업 결과 발표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회장 지관)는 3월 25일 '2010년 이주민 쉼터 및 센터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단체는 구미 꿈이루는사람들(자조모임 공간개설, 400만원), 광주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센터 시설 보강, 500만원), 안양 안홍사이주민가족지원센터 개소, 400만원), 광주 아시아밖을공동체(모국동화반역, 200만원), 오산 행복하이주민센터(우리가셰프, 200만원), 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사회적응프로그램, 100만원), 여주이주민지원센터(다살림공동체, 200만원) 등이다.

경기도·봉녕사 시민문화공원 조성 MOU 체결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수원 봉녕사(주지 묘입)는 3월 23일 봉녕사에서 시민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7월부터 광교산 녹지속인 봉녕사 일대 12만8000㎡(공원부지 5만㎡, 봉녕사부지 7만8000㎡)에 총 265억원을 투입해 주민 휴식공간과 진입로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봉녕사는 사찰부지에 불교사찰유식연구소와 어린이집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관음종 묘각사서 제38차 연수교육

관음종(총무원장 흥파)은 3월 22~24일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제38차 연수교육을 병행했다. 연수교육에서 관음종 52명의 스님이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흥파 스님은 "관음종이 과거보다 앞으로 사회에서 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며 회향을 강조했다.

군종교구 백담사서 군승안거, 141명 참가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3월 23~25일 인제 백담사에서 141명의 군승 및 민간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승안거를 병행했다. 이번 안거 기간에는 독신 조향 도입 이후 종단 소속 일원으로서 애종심을 고취하기 위해 포살 및 정진 수행, 분한신고와 관련된 초청특강 등이 개최됐다.

조계종 문화재사찰 입장료 전자발권시스템

문화재사찰 입장료 수입이 통합전자발권시스템으로 변모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주)아이모인은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문화재보유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 통합전자발권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다문화센터 어린이 합창대회 5월 17일까지 접수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김의정)는 5월 30일 오후 2시 남산 국악당(한옥마을)에서 전국다문화 어린이 합창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3월 17일~5월 17일 대회에 참가할 합창단(중창 8개, 합창 8개 팀)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자유롭게 구성되며 팀의 50% 이상이 다문화 어린이로 구성돼야 한다. 인원은 지휘·반주자를 포함해 한 팀에 중창단 10여명 합창단 20~30명으로 지정됐다. 예선은 단원들의 노래를 담은 CD, 동영상, 음원 중 한가지로 제출해 평가한다. 최종 대회참가자 발표는 5월 20일로 예정돼있다.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승정(중사)학부

제2기 풍광교육 학인 (법계: 대종사, 중사, 등)모집

1. 입학자격 : 각 종단 승정 및 총무원장, 원장급, 품계 승정(중사)급이상
2. 구비서류 : 본원 소정의 승정교육신청서 1통, 사진매.
3. 수강기간 : 3개월이내 5회 교육 (당일 4시간)
4. 개강일시 : 불기2554년 4월 9일(금) 오후 1시
5. 수강장소 : 대구시 북구 읍내동1122번지 대승사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6. 총 무 처 : 053)325-5288, 교학처 053)325-0400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원장 원당대중사
승정학부 교무처장 석묘각, 총무처장 석능인.